광주문화재단 '2026 토요상설공연 라인업' 공개

무등산 자락서 이어지는 전통예술 향연

오는 11일 전통문화관 첫 토요상설공연 무대에 오르는 '전주판소리합창단'

내일 전통문화관서 판소리 다섯바탕전 시작으로 매주 주제별 공연·체험 결합한 다양한 프로그램

광주문화재단이 전통공연예술 활성화와 시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2026 토요상설공연' 라인업을 공개했다.

15주년을 맞은 올해 시즌은 공연과 체험을 결합한 프로그램으로 시민의 일상 속 전통문화 향유를 넓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

2012년 시작된 토요상설공연은 '토·토·전(토요일, 토요일은 전통문화관에서 놀자!)'을 슬로건으로 누적 관객 20만명을 돌파하며 광주를 대표하는 전통 상설공연으로 자리 잡았다.

2026년 시즌은 '시민이 있는 문화·예술'을 비전으로 내세워, 매주 다양한 장르의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올해 첫 공연은 오는 11일 오후 3시 전통문화관 서석당에서 열린다.

전주판소리합창단이 무대에 올라 '판소리 다섯바탕전 - 오색오락(五色娛樂)'을 선보인다.

판소리합창 장르를 개척한 이 단체는 판소리 다섯 바탕을 합창과 아카펠라로 재해석한 창작 무대를 펼치며,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의미를 담은 창작곡 '남도유랑기'를 초연한다.

토요상설공연은 매주 주제를 달리해 운영된다.

매월 첫째주에는 판소리와 산조 무대로 꾸며진다. 고혜수·최지혜(5월2일), 조수황·김보람(6월6일), 송혜원·최성욱(7월4일), 윤상미·신소영(9월5일), 김다정·김효빈(10월3일)이 출연한다.

둘째주에는 국악창작 무대가 이어진다. 전주판소리합창단(4월11일)을 시작으로 비담(5월9일), 협동조합 효성(6월13일), 디딤돌(9월12일), 아트컴퍼니 모디(10월10일)가 관객을 만난다.

셋째주에는 연희와 무용 공연이 펼쳐진다. (사)지산농악보존회(4월18일), 더문댄스컴퍼니(5월16일), 무가향 몸짓(6월20일), 오하(9월19일), 타악그룹 얼쑤(10월17일)가 참여한다.

넷째주와 다섯째주에는 무형유산 초청 무대가 이어진다. 방성춘 동초제 춘향가, 문명자 가야금병창, 이순자 춘향가, 이영애 가야금병창, 황승옥 가야금병창, 김선이 동초제 흥보가, 최연자 강산제 심청가, 양신승 고법, 불교영산재보존회 등 총 25회 공연이 마련된다.

공연과 함께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전통문화관 너덜마당에서는 '고구려 벽화 속 연희놀이' 체험이 진행된다. 버나놀이와 죽방울놀이 등 전통 연희를 비롯해 윷놀이, 투호, 제기차기 등 다양한 전통놀이를 체험할 수 있으며, 24절기를 주제로 한 체험 프로그램도 월 1회 운영된다.

한편 토요상설공연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무료로 진행되며,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최명진 기자

정재연구회 '무고' 공연

해설로 만나는 전통음악·궁중무용

내일 국립남도국악원, 북춤 '무고' 등 무대

전통음악과 궁중무용의 아름다움을 느껴볼 수 있는 공연이 마련됐다.

국립남도국악원은 오는 11일 오후 3시 국립남도국악원 진악당에서 '해설이 있는 토요상설공연'을 선보인다. 국악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도록 전문 해설이 함께하는 공연 형식으로 진행된다.

해설은 정효문화재단 대표이자 한양대 겸임교수, 전 국립국악원 학예연구관 주재근씨가 맡아 각 작품의 역사적 배경과 음악적 특징, 전통 공연예술의 의미를 깊이 있게 전한다.

공연에는 기악곡과 궁중무용, 가곡 등 다양한 작품이 무대에 오른다.

천년만년 수명이 이어지길 기원하는 기악 합주곡 '천년만세'를 시작으로, 북춤 '무고', 전통 성악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남창가곡, 맑고 고아한 선율의 '청성곡', 하늘처럼 영원한 생명을 기원하는 '수제천' 등 전통예술의 정수를 담은 작품들이 공연된다.

특히 궁중무용 '춘앵전'에는 무용가 이미주가 출연해 섬세하고 우아한 궁중 춤사위를 선보일 예정이다. /최명진 기자

同人선생의 易經 강좌

"동인우야 형, 이섭대천, 이군자정"

〈同人于野 亨, 利涉大川, 利君子貞〉

〈제54강〉 13. 천화동인(天火同仁) 上

역경의 열 세번째 괘는 천화동인(天火同人)이다. 비괘(否卦)는 상하, 내외가 배반하고 서로 교차하지 않으며 자기 고집대로 진퇴해서 모든 일이 막히고 통하지 않는다.

그러나 비괘(否卦)도 상효(上爻) 때가 되면 비색(否塞)한 것이 기울어지고 불화(不和)도 점점 해소돼 사람들이 태평의 세상으로 가려고 서로 힘을 합치고 노력하게 되는데, 바로 이괘가 천화동인이다. 그래서 천화동인괘를 비괘 다음에 배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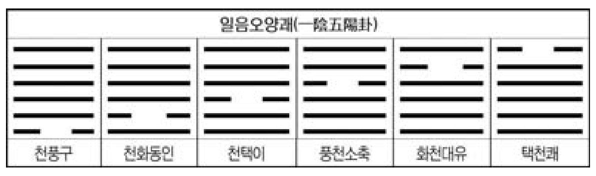
천화동인(天火同人)	同人于野 亨, 利涉大川, 利君子貞	卦 象
⚊	同人于郊 无悔	遊魚從水之課
⚊	同人, 先號咷而後笑, 大師克, 相遇	
⚊	乘其墉 弗克攻, 吉	暗夜提燈之象
⚊	伏戎于莽 升其高陵, 三歲不興	管鮑分金之象
⚋	同人于宗, 吝	
⚊	同人于門, 无咎	二人分金之意
천여화 동인, 군자류족변물(天與火 同人, 君子類族辨物)		

서괘전(序卦傳)에서도 '사물은 끝까지 비색할 수만은 없다. 그러므로 동인괘로 이어 받는다'고 해 '물불가이종비 고 수지이동인'(物不可以終否 故 受之以同人)이라 했다. 즉, 만물은 막힘이 다하면 끝에는 풀어지는 것으로, 비(否)가 극하면 기울어지고 모든 것은 어떻게든 통하는 것이다. 동인괘는 하늘과 태양이 서로 붙어 있다. 건상이화(乾上離下)로 외괘 건천(乾天) 내괘 이화(離火), 하늘과 태양이다. 건천 하늘과 이화 불이 서로 같이 올라가고 함께 나아가는 덕을 가지고 있어 서로의 작용이 몹시 닮아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과 사람이 힘을 모아가는 상을 생각해 '동인'(同人)괘라 이름하고, 동지(同志)로서 뜻이 같은 자는 아주 친하기 때문에 잡괘전(雜卦傳)에서는 이를 '동인친야'(同人親也)라 했다. 사람들이 한마음이다.

그러나 동인괘는 하늘과 불의 기(氣)로만 돼 있어 형태가 없고 손에 잡히거나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또한 일음오양(一陰五陽)괘이다. 육십사괘중 일음오양의 괘는 모두 여섯 개가 있고 공통적 특징이 있으며 또한 저마다 독특한 특성과 상의(象意)를 가지고 있다.

초효에 음(陰)이 있는 천풍구(天風), 이효 음은 천화동인(天火同人), 삼효 음은 천택이(天澤履), 사효 음은 풍천소축(風天小畜), 오효 음은 화천대유(火天大有), 상효 음은 택천쾌(澤天)로 모두 오양(五陽)이 일음(一陰)을 구한다는 공통된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오양이 모두 동류(同類)로 뜻을 같이 하면서 공동의 노력으로 일음(一陰)을 구하는 것은 '천화동인'괘 뿐이다.



동인괘의 육이 음효는 유순중정(柔順中正)의 효로서 강건중정(剛健中正)의 구오의 군에 대한 신하요, 남편에 대한 처(妻)의 위치로서 가장 마땅함을 득해 상응하고 있어 양의 군(君), 부(夫)가 바로 틀림없이 구하고자 하는 상대가 바로 육이이다.

동인괘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둘 이상인 사람들이 동일 행동을 취하는 것이고 그들 사이에 친밀함이 있으며 뜻이 같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단사(彖辭)에서도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뜻이 같고 친밀함이 있는 것을 하늘(乾天)과 불(離火)의 상과 성질을 가지고 설명한다.

동인괘의 상을 보면 상괘는 건괘로 견실하고 힘이 넘친다. 특히 구오는 대단한 힘과 능력의 소유자이나 삼양(三陽)으로 거칠고 치밀함이 부족하다. 따라서 구오를 보좌할 수 있는 능력있는 치밀한 음이 하층부의 중심에 있어 구오와 육이가 음양상응(陰陽相應)한다면 가장 바람직해 구오는 육이의 보좌를 받아 이상사회(理想社會)를 건설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동인괘의 육이의 음효다. 그러므로 이상사회 건설을 위해 상괘와 하괘가 한마음이 돼야 한다는 뜻에서 '동인'(同人)괘라 했다.

마치 조선시대 조광조의 보좌를 받아 이상사회를 구현하려 했던 중종(中宗)의 경우다.

동인괘의 상하괘 간의 상을 살펴보면, 상하가 하나의 뜻을 가지고 행하는 바가 같으니 놀고 있는 물고기가 물을 따르는 유어종수지과(遊魚從水之課)이고, 이상사회 건설을 위해 각고의 노력으로 어두운 밤에 불을 밝히는 암야제등지상(暗夜提燈之象)이며, 같은 뜻을 가지고 친밀한 모습이니 관중(管仲)과 포숙(鮑叔)의 관포분금지상(管鮑分金之象)이고, 두 사람이 똑같이 사이좋게 귀한 것을 나눠 갖는 이인분금지의(二人分金之意)의 뜻을 함축하고 있다.

천화동인괘(同人卦)의 괘사(卦辭)는 '동인우야 형, 이섭대천, 이군자정'(同人于野 亨, 利涉大川, 利君子貞)이다. 즉 '막힘이 없는 들에서 뜻이 같은 사람들과 함께하면 형통하다. 큰 하천을 건너는 것이 이롭고 군자가 바르게 나아가면 이롭다'는 뜻이다.

'들'(野)은 막힘이 없이 모두가 다 볼 수 있는 곳이니 공명정대(公明正大)하게 대의명분(大義名分)에 입각해 뜻이 같은 사람을 모으면 형통하다(同人于野 亨)는 것이고 그리해야 곤란한 상황에서도 대사(大事, 大川)를 성사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일을 추진하는 군자 또한 바르게 나아가야만이 이롭다(利君子貞)는 의미이다.

단전(彖傳)에서 '동인유득위 득중 이응호건'(同人柔得位 得中 而應乎乾)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육이의 유순중정(柔順中正)의 효를 얻어 건에 응한다'고 해 육이는 반드시 구오의 강건중정(剛健中正)의 효하고만 응하는 것이 아니라 상괘 사효와 상효 모두와 응하고 있다고 판단해야 한다. 그 이유는 동인괘는 뜻이 같은 사람의 집단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 뜻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전(象傳)에서는 '천여화 동인, 군자류족변물'(天與火 同人 君子類族辨物)이라 말하고 있는데, 이는 '하늘이 불과 함께 있는 것이 동인이고 군자는 같은 동족으로 뭉치나 각각 다른 면이 있어 변별이 된다'는 것이다. 동인괘는 하나로 뭉쳐 공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나 뭉쳐진 각각은 또한 변별(辨別)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서죽을 들어 동인괘(同人卦)《※각주=상왈(象曰), 하늘과 불이 친화함이 동인이다. 군자는 사람과 사물의 같음과 다름의 종류를 분별한다(天與火 同人, 君子以類族變物). 동인은 이궁삼세로 괘는 정월에 속한다(離宮三世 卦屬正月). 납갑은 己卯, 己丑, 己亥, 壬午, 壬申, 壬戌이고 차용은 甲午, 甲申, 甲戌이다. 정월 및 납갑에 생한 자는 공명부귀인이 된다(生於正月急納甲者 功名富貴人也)》**을 얻었다면, 하늘의 기운과 불의 기운은 오르려는 성질이 같고 구오와 육이가 제자리에 있어 공명정대하고 대의명분에 따르는 뜻이 일치하니 국공익 등의 사업에 길하고 공동사업이 좋다. 그러나 공동사업은 경쟁자가 많아서 관포지교(管鮑之交)와 같은 신의있는 사람과 함께해야 한다.**

겉은 평온하게 보이나 내부에서는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려고 서로 다투고 있고 오양이 일음을 차지하기 위한 분쟁이 일고 있는데 여자와 관련돼 있다.

여자의 신상을 점한 경우라면 육이(六二) 혼자 오양(五陽)을 상대하고 있으니 과부(寡婦), 천업부(賤業婦)이고 성질이 좋지 않으며 소행이 절제가 안된 여자이다. 따라서 혼인점이라면 삼각관계 그 이상이 숨어있으니 단념하는 것이 좋고, 재혼이라면 무난하며 잉태는 건포괘(乾包卦)로 무사하다.

운기는 좋은 때로 능력있는 좋은 아랫사람, 부하를 얻는다.

사업, 지망, 취업 등은 경쟁자가 많고 남과 공동으로 하는 것이 이득을 볼 수 있으나 관포(管鮑) 관계인 신의있는 사람과 함께 해야 한다. 교섭, 담판은 빈주법(賓主法)으로 보아 상대가 더 강하나 본인이 문서, 증거 등을 쥐고 있어 상대가 화해하려고 올 수 있으니 부드러움으로 강함을 제압하는 방식을 써야 한다.

기다리는 사람은 돌아올 기미는 없으나 역시 빈주법으로 보아 많은 사람과 함께 올 수 있고 가출인은 친구, 동료와 함께 나갔다. 분실물은 여자 손으로 들어갔고 찾기 힘들다.

병은 전염병, 유행성 감기, 화류병 등이고 병세는 고열, 폐질환, 한쪽 눈을 잃기 쉬운 안질 등으로 절망상태에 빠질 수 있다.

소위 일본의 역성(易星)이라 불리우는 '고도탄상 가우위문'(高島呑象 嘉右衛門)은 명치3년(1870년)에 '자신의 운세와 장래 여하'를 육변서로 입서해 '천화동인 불변괘'(不變卦)를 얻고 다음과 같이 인생의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실천에 옮겨 국가발전에 크게 공헌했다. 당시 일본은 명치유신의 초창기로 개화의 바람이 불고 태평성대를 열기 위해 모든 지식인들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때였다.

고도탄상은 점고하기를 "**동인괘는 동도(同道)의 뜻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공평무사(公平無私)한 마음을 하나로 모아 국가공익사업의 임무를 완수해 나아가는 괘다.** 아래의 서민들을 평민으로 올리고 위는 내려 사민평등(四民平等)으로 모두가 일치 단합해 국가의 기초를 건설한다는 것이 동인의 큰 뜻이다. 이를 '동인우야 형'(同人于野 亨)이라 하고 '동인유득위 득중이응어건 왈 동인'(同人柔得位 得中而應於乾 曰 同人)이라 한 것이다.

즉, 하괘 육이인 유(柔)는 중정의 위치에 있고 상괘인 구오가 중정에 응하는 것은 '내가 하려고 하는 사업이 민간의 중정 위치에서 위로 정부의 정책과 그 목적이 같아서 정부가 원조하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국가공익사업을 추진하면 이를 이룰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를 상전에서는 '이섭대천 건행야 이군자정'(利涉大川 乾行也 利君子貞)이라 했다. 따라서 내가 먼저 문명사업을 일으켜 부흥시키면 정부의 일을 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모두가 바라고 찬성하게 되니 이를 '군자위능통천하지지'(君子爲能通天下之志)라 한 것이다.

이러한 취지와 목적 하에 '고도탄상'은 자신의 재산을 투자해 비각선(飛脚船)을 축조하고 철도사업을 창시해 내국의 운수를 편리하게 했으며, 서양식 학교를 짓고 교사를 외국으로부터 초빙, 교육사업을 진행시켰으며, 가스 등을 요코하마항에 부설하는 등 4대 사업을 이뤘다.

이러한 진행과정에서 동인괘의 육이의 시기(2년차)에는 이권(利權)이 같은 동족끼리만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추진하는 일도 많았고, 구삼과 구사의 시기(3, 4년차)에는 이러한 공익사업을 방해하는 방해자와 장애물도 많았으나, 구오의 시기(5년차)에 방해자와 장애물을 제거하고 완성함으로써 상구의 때(6년차)에 은퇴해 편안한 삶을 영위하게 됐다"고 말한다.

【동인선생 강좌개설안내(062-654-4272)】

○개설과목(2):명리사주학,역경(매주토,일오전)

○기초이론부터최고수준까지 직업전문가양성